

#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8호 2019년 5월 15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영지 연구원

## 주요내용

### 통계로 보는 북방(p.2)

- 금년 1분기 우크라이나 전체 항만 환적량, 지속적인 증가세 보여

### 주요 동향(p.4)

#### • 동부(p.13)

- FESCO·HMM, 동아시아 물류 운송 경로 재편 및 항로 추가 편성
- 러 극동지역 농업 발전 보조금 지원

#### • 중부(p.8)

- '몽골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 가능성'을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 • 서부(p.10)

- 러 철도청, 'BTK 철도'와 '남북 국제운송회랑' 연결 추진

### 주요통계(p.12)

- 2019년 1~4월 러시아 지역별 항만 물동량

### 공지사항(p.13)

- 제9차 한러극동포럼 소개
-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 사업 소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통계로 보는 북방

### ■ 금년 1분기 우크라이나 전체 항만 환적량, 지속적인 증가세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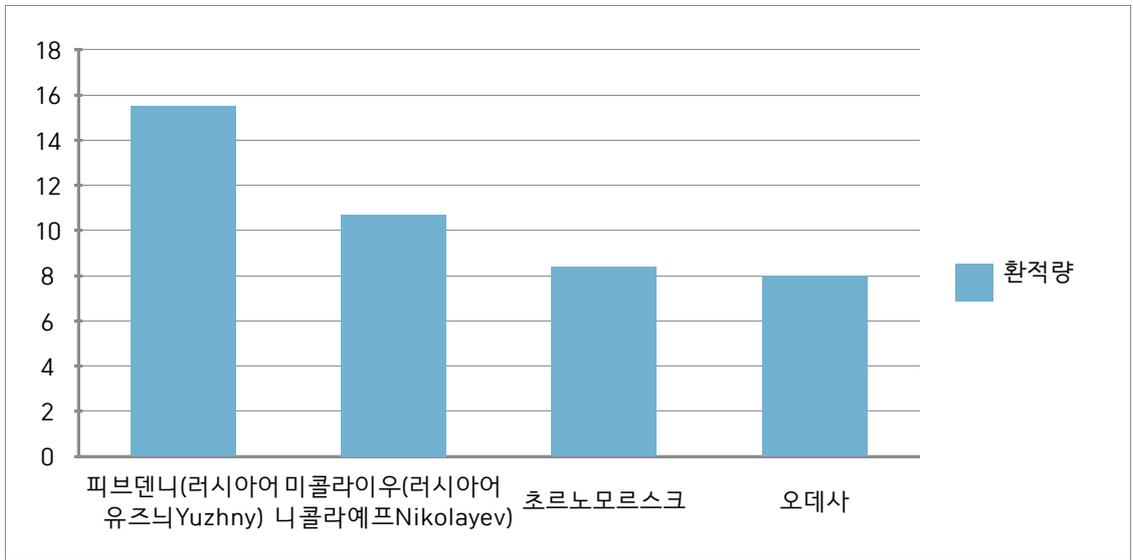
-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우크라이나 전체 환적량은 4,880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백만 톤(12%)이 상승한 수치임
  - 특히 환적량의 1/3을 차지하는 품목은 제과제빵 제품인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40만 톤이 증가한 1,800만 톤을 기록했음
  - 이어서 광석이 1,050만 톤을 기록했고, 화학 및 미네랄 비료가 뒤를 이었음
  - 컨테이너 환적량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4만 7천8백TEU(18.6%)가 상승했음
  -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에는 수출 증가가 기여한 바가 큼. 항만을 통한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한 반면, 수입 및 통과화물 처리량은 각각 5%, 18.5%가 감소했음
  
- 금년 1분기 총 환적량 중 87%는 우크라이나 내 4개의 주요 항만인 오데사(Odessa), 초르노모르스크(Chornomorsk), 미콜라이우(Mykolaiv), 피브덴니(Pivdennyi) 항에서 처리되었음
  - 이 중에서 피브덴니항(러시아어 유즈니Yuzhny)의 환적량은 1,550십만 톤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수치임
  - 2위는 미콜라이우항(1,0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3%가 증가했음
  - 전년 대비 환적량 상승치가 가장 높았던 항만은 초르노모르스크 항으로, 20.9%가 증가한 840만 톤을 기록했음. 한편 오데사항은 5.5%가 상승한 800만 톤을 보였음
  
- 한편 우크라이나 항만 이용 선박 수는 3,787척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2척)이 감소했으나, 여객수송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19%가 상승한



5만 5천 명을 기록했음

- 전체 이용객의 3/4인 42,149명은 국내선 이용자로, 주로 헤르손(Kherson)과 오데사항 연안페리 노선을 이용했으며, 국제선 이용자들은 약 1만 3천명으로, 주로 초르노모르스크항 또는 우스티-두나이스크(Ust-Dunaysk·오데사 주 소재)항을 주로 이용했음

**2019년 1~4월 항만별 환적량** (단위: 백만 톤)



자료: Maritime Business News Ukraine 2019

참고자료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C%D0%BE%D1%80%D1%81%D1%8C%D0%BA%D1%96-%D0%BF%D0%BE%D1%80%D1%82%D0%B8-%D1%83%D0%BA%D1%80%D0%B0%D1%97%D0%BD%D0%B8-%D0%BF%D1%80%D0%BE%D0%B4%D0%BE%D0%B2%D0%B6%D1%83%D1%8E%D1%82%D1%8C-%D0%BD%D0%B0/2019/05/13/>(검색일: 2019년 5월 14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동부권역 주요 동향

### ■ FESCO·HMM, 동아시아 물류 운송 경로 재편 및 항로 추가 편성

- 기존 CRN(China Russia North Service) 재편
  - 5월 14일부터 칭다오-상하이-닝보-블라디보스토크 순으로 기항지 변경
  - ningbo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소요 시간이 5일에서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 노선의 소요시간은 7일에서 4일로 각각 단축될 것으로 예상

#### CRN 항로



자료: Google Map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 한국과 러시아 간 KR2(Korea Russia 2)와 KRS(Korea Russia Service)의 2개 신규 항로 추가
  - 5월 11일에 러시아 보스토치니와 부산을 직항으로 연결하는 KR2 항로에



- 1,0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투입해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 5월 14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을 직항으로 연결하는 KRS 항로에 1,200TEU급 컨테이너선을 1척 투입해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 KR2와 KRS 항로의 각 소요시간은 36시간으로 예상됨



자료: Google Map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참고자료 : <https://www.freightwaves.com>(검색일: 2019년 5월 14일)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 ■ 러 극동지역 농업 발전 보조금 지원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농업 발전 및 투자협력 등을 위해 극동 11개 지역에 3년간 약 10억 7,000만 루블을 지원하기로 함
  - ‘농업협력 개발 및 농민지원 시스템’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및 이니셔티브 일인 기업 지원’ 프로젝트에 따라 예산이 지원됨
  - 극동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 총 83개 지역에 약 140억 루블이 지원됨
- 올해 극동지역의 경우 약 3억 6,030만 루블을 지원받으며 2020년에 약 3억 3,810만 루블, 2021년에 약 3억 7,020만 루블이 지원될 예정임

극동지역 농업부문 지원 금액

단위: 루블

지역	금액	지역	금액
부랴티야 공화국	1억 5,770만	프리모리예 변경	9,650만
사하 공화국	2억 8,720만	하바롭스크 변경	8,780만
자바이칼 변경	1억 4,330만	아무르주	1억 4,580만
캄차트카 변경	3,980만	마가단주	2,650만
사할린주	2,550만	유대인 자치주	4,000만
추코트카 자치구	2,650만	-	-

자료: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964/>(검색일: 2019년 5월 12일)

- 극동투자 및 수출지원 공사는 농장개발 등 농업분야 투자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본 공사는 현재 농업분야가 러시아 국내 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향후 극동지역 농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몇 년 동안 약 40개 이상의 농업분야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투자금액은 약 5,200억 루블에 달함
  - 농업 프로젝트는 아무르주 및 연해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사할린에서는 돼지 사육장, 온실단지, 우유가공단지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극동투자 및 수출지원 공사는 극동북극개발부의 지원을 받아 18개의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며 생산된 제품을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 판매·수출하고자 함
  - 18개 농업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8건-농작물 및 채소 생산, 6건-축산업, 3건-농산물 저장 및 운송, 1건-사료생산 및 저장
  
- 현재 극동지역 농업분야의 가장 큰 투자 및 협력국은 중국이며 2018년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1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함
  - 이는 극동연방관구 농산물 총 수출의 약 49%를 차지함

■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964/>(검색일: 2019년 5월 12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중부권역 주요 동향

### ■ ‘몽골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 가능성’을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 지난 5월 8일 몽골 울란바타르 시청에서 ‘몽골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 글로브 인터내셔널 센터(Globe International Center) 주관으로 개최된 본 컨퍼런스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메커니즘을 통한 인권 및 노동권 보호’ 계획의 일환임
  - 본 컨퍼런스는 울란바타르 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몽골상공회의소가 후원했으며 몽골 내 기업인들에게 유럽 시장의 제품 수출 가능성 및 이를 통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제안하는 자리
  
- 본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의 민간 부문 비즈니스 지원 및 가능성 확대, 경영 어려움 해소, 우호적 법률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본 컨퍼런스에는 울란바타르 내 혁신기술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할리웅바트씨(M.Khaliunbat)가 개회사를 맡음
  - 할리웅바트는 개회사에서 “몽골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울란바타르 시에 전체 비즈니스 기업인의 66%인 57,967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체가 몽골 GDP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몽골의 핵심동력이 울란바타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
  - 또 몽골 내 사업체들이 해외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동시에 큰 가능성도 있음을 강조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메커니즘을 통한 인권 및 노동권 보호’ 계획에는 몽골을 포함한 9개 국가가 수혜 대상국에 포함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메커니즘을 통한 인권·노동권 지원’ 계획은 유럽연합(EU)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DRI)’을

중심으로 시행 중

- 본 계획은 인권 보호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회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해당 국가에는 더 큰 폭의 관세 인하 제공
- 현재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스리랑카 등 9개 국가가 유럽연합의 GSP+ 수혜 대상 국가에 포함됨

참고자료 : Ulaanbaatar City Hall (검색일: 2019년 5월 12일)

신민선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서부권역 주요 동향

### ■ 러 철도청, 'BTK 철도'와 '남북 국제운송회랑' 연결 추진

- BTK 철도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와 조지아의 트빌리시, 터키의 카르스를 잇는 노선
  - 2017년 10월 완공된 BTK 철도의 총 연장은 826km에 달하며 중국에서 유럽까지 육로 수송시간을 70시간 이상 단축시킴
  - 해당 노선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장 가까운 철도로 평가되며 러시아 또는 이란을 경유하는 기존의 루트를 대체함
  - BTK 철도 외에 세 국가들은 BTC(Baku·Tbilisi·Ceyhan)송유관과 BTE(Baku·Tbilisi·Erzurum)가스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
  
- 러시아 철도청은 BTK 철도와 자국의 남북운송회랑 프로젝트 연결을 추진 중임
  - 남북운송회랑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운송회랑의 한 노선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이란의 반다르압스을 거쳐 인도의 뭘바이까지 연결되는 노선
  - 2019년 5월 6일 터키의 앙카라에서 개최된 러시아-터키 간 회의에서 양국은 BTK 철도 노선 발전에 관한 MOU를 체결
  - 해당 MOU를 통해 양국은 관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어 BTK 노선의 화물 수송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철도청은 BTK 노선을 남북운송회랑과 연결시키기 위한 러시아-터키 합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 밝힘
  - 이를 위해 양국은 조지아의 아칼칼라키(Akhalkalaki)지역과 터키의 카르스를 연결하는 구간에 러시아 철도의 1520mm 광궤를 사용하는 두 번째 철도 건설 추진에 합의함



BTK 노선과 러시아의 남북운송회랑



자료: <http://georgiatoday.ge/news/10086/Azerbaijan%2C-Russia%2C-Iran%2C-India-Begin-Testing-North-South-Transport-Corridor-with-a-Rally>(검색일: 2019년 5월 9일)

- 참고자료 : [http://logirus.ru/news/transport/rzhd\\_logistika\\_-\\_obmozguet\\_-\\_s\\_turkami\\_zh\\_eleznodorozhnye\\_marshruty\\_iz\\_baku\\_v\\_kars.html](http://logirus.ru/news/transport/rzhd_logistika_-_obmozguet_-_s_turkami_zh_eleznodorozhnye_marshruty_iz_baku_v_kars.html)(검색일: 2019년 5월 8일)
- <http://georgiatoday.ge/news>(검색일: 2019년 5월 8일)

이호건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leehkun2010@gmail.com



## 주요 통계

### 2019년 1~4월 러시아 지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지역	건화물	액화물	합계	2018/2019 증감(%)
극동 지역	41.97(+9.4%)	26.06(+5.9%)	68.03	+8.1%
북극 지역	9.97(+9.4%)	24.71(+30.7%)	34.67	+23.7%
발트해 지역	35.84(+2.5%)	49.22(+5.3%)	85.06	+4.1%
아조프-흑해 지역	28.74(-27.1%)	50.51(+2.9%)	79.25	-10.5%
카스피해 지역	0.85(-15.6%)	1.39(1.9배 증가)	2.25	+31.1%
합계	117.37(-4.4%)	151.88(+8.4%)	269.25	+2.4%

참고자료 : <http://www.morvesti.ru/detail.php?ID=78556> (검색일: 2019년 5월 14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



## 공지사항

### 1 한러 극동포럼 개요

#### □ 배경과 목적

- 초국경 협력시대 개막 전망에 따른 극동러 지역에서의 한러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제안
  - 자바이칼, 부랴트공화국 편입에 따른 극동 공간 확장에 부응
  - 남북러(중) 협력 가능성 논의의 장 제공
- 실질적인 투자와 우리 기업 지출에 '기회의 장' 제공
- 한러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공모델 창출에 기여

□ 주 제 : 초국경 협력시대 극동에서의 한러 공급사슬 구축방안

□ 일 시/ 장소 : 2019. 6. 4(화) ~ 6. 5(수), 블라디보스토크

□ 주 최 및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 후 원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 □ 주요 포럼 일정

6. 4(화)	17: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li> <li>-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랑데뷰</li> </ul>
6. 5(수)	09:00 ~ 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러 극동포럼</li> <li>-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다이아몬드A홀</li> </ul>
	14: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KOTRA)</li> <li>-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다이아몬드B홀</li> </ul>



**2 9차 한러극동포럼 프로그램(안)**

○ 일시 및 장소: 2019.6.5(수). 09:00~18:00, 롯데호텔 다이아몬드A홀

구 분	주요 내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b>개회식</b>		
09:30~09:40	개회사	(한측) 양창호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원장
	축사	(러측) 코제마크 연해주 지사
	환영사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잠정)
09:40~09:50	사진 촬영	
09:50~10:00	기조 연설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한러기업협의회장) (잠정)
<b>Session I 농수산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b>		
10:00~12:00 좌장: Boris Stupnitsky 연해주 상공회의소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극동러 농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 (알렉세이 에멜류아노프 농바이오연구센터 극동대표)
		2. 극동러 수산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 (장홍석 박사, KMI)
		3. 극동러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 한러협력 회고와 전망 (세르게이 레루힌 극동수산물거래소 대표)
	토론 각 10분	4. 남북러 초국경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의 새로운 방향제언(김중선 센터장, 농경련) (한) 엄선희 실장(KMI), 안동환 교수(서울대) (러) 마요로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투자국장, 마틴 테이트 Tate그룹 대표
<b>12:00~13:30 오찬</b>		
<b>Session II 제조업-산업단지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b>		
13:30~15:30 좌장: 장지상 산업연 원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러시아의 제조업 국제경쟁력 확보 목표와 극동에서의 과제 (러 극동북극개발부 또는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 극동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과제(이현주 박사, 국토연)
		3. 극동러에서의 제조업 공급사슬 구축의 제약요인과 대응방안 드미트리 쿠디노프 마스다슬러스 대표/(후보)극동조선수리센터(즈베즈다)
	토론 각 10분	4. 극동러 제조업 분야 남북러 산업협력과 공급사슬 구축방향(김학기 박사, 산업연) (한) 이백진 소장(국토연), 전명수 교수(블라디보스토크경제서비스대), 이병만 처장(LH 한국토지주택공사) (러) A. 예로힌 언스트&영 극동대표, N. 프리시키나 법무법인 Pepeliaev 극동대표
<b>15:30~15:50 Coffee Break</b>		
<b>Session III 초국경 시대 Supply Chain 구축 촉진 방안</b>		
15:50~17:50 좌장: 강현수 국토연 원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러시아 국제 트랜지트 수송 활성화 목표와 한러 협력과제 (미하일 홀로샤 FEMRI 부대표)
		2. 극동러 제조업 분야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다각화 사례 (천정우 컨설턴트, EY모스크바)
		3. 러시아의 북극해 자원개발과 공급사슬 구축 계획 (데니스 부로프,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총장)
	토론 각 7분	4. 한러 자원 공급사슬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 (조지성 박사, KMI) (한) 안병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임영태 박사(국토연), 김주호 그룹장(포스코에너지) (러) 이고르 후루시체프 러연방교통부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알렉세이 크루체프 주한러시아 대사관 관세관, 캄차트카 주정부(잠정)
<b>17:50~18:00 마무리(이성우 본부장)</b>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가능



##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 사업 안내문

'19.5.14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KOTRA는 제9차 극동포럼과 연계하여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를 개최합니다. 한·중·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초국경 협력시대 개막 전망으로 그 어느때보다 한·중·러 경협 채널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한·중·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 사업개요 \* 제9차 한러극동포럼 연계

- 일시 : 2019.6.5.(화) 14:00~17:30
  - \* 극동포럼 plenary session 및 네트워크 오찬 후 주제별 세션 시간과 병행 개최
- 장소 : 블라디보스톡 롯데호텔 다이아몬드 B홀
- 참가 : 극동러 프로젝트 디벨롭퍼 및 수행·협력 희망 기업
  - \* 중국 조선족 동포기업가 및 중국 투자가 포함
- 내용 : 프로젝트 1:1 상담회

### □ 상담 프로젝트 개요

연번	구분	기업/기관	프로젝트 내용
1	한국진출기업	호야씨앤티	연해주 부동산 개발(짚질방, 딸기체험농장 등 휴양시설) 샌드위치판넬, 보일러, 바닥온수히팅시스템 판매
2	한국진출기업	피오네르보스토카	연해주 고랭지 채소재배 클러스트 조성
3	한국진출기업	다원그룹건축사	연해주 건축 설계 협력
4	고려인기업	Posyetskaya	포시에트 연안 수산가공 콤플렉스 개발
5	고려인기업	Sea Trade	우수리스크 막걸리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
6	러시아기업	Ecomett	연해주 Ash 및 Slag 재활용 콤플렉스
7	러시아기업	Ecostar Factory	연해주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
8	러시아기업	Dalstar	연해주 인삼, 영농, 바이오체험 콤플렉스 구축

\*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